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부처	<p>[국회]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범위 확대 · · · 수소법 발의 (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일 수소법 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수소사업 관련 기관과 단체만 지정할 수 있었던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에너지 수급 · 유통관리 기관, 단체까지 확대
		<p>[기획재정부] 수전해장치제조시설, 자연녹지지역 설치 허용 추진 (0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 · 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 연장선에서 마련한 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 -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 · 개발용 수전해설비, 수소추출 설비 등 수소시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보를 전제로 별도 간이관리체계를 마련해 인허가 및 검사 간소화를 추진 - 또 수소산업육성을 위해 타당성 검증 후 수전해 장치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지방자치단체	<p>[제주특별자치도] 두산에너지, 제주도와 풍력·수소 청정에너지 협력 (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에너지는 제주도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을 체결 - 제주도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두산에너지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마케팅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에너지 분야 지역인재 교육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기로 논의 -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고용 창출 ▲해상풍력 장기 환경 모니터링 ▲수소 생태계 활성화 ▲폐블레이드 업사이클링 등 환경성 강화의 5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
		<p>[전북자치도-충청남도] 지역 강점 결합한 수소차 혁신 ‘맞 손 잡는다’ (07.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지역은 산업부의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동 선정돼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4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 전북은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규모의 센터와 수소 공급 시설(300㎡)을 건립.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과 내구성 검증 장비 3종을 구축할 예정(2024.09. 착공 예정) - 충남은 연면적 375㎡ 규모의 공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전기, 냉각, 수소공급시설 증축을 추진. 연료전지스택, 전력변환장치, 열관리, 수소저장, 신뢰성 장비 등 5종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자치단체	<p>6대의 장비도 설치할 계획</p> <p>[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수소·중입자 미래 新산업 날개 달고 천만 관광도시로 도약(07.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시정비전인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에 걸맞게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천만 관광도시, 동해안 대표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강원도 1호 수소생산시설과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친환경적이고 잠재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발전에서 시정의 역량을 집중 - 이 결과 수소 R&D 특화도시 지정 및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지난해 12월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수소기업들의 이전과 투자 유치전략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실증사업 및 검·인증 시험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 전문기업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 산업 단지 조성 및 임대형 공장 구축 - 수소에너지의 활용면에서 수소 버스 및 트럭, 화물선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에 따른 수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수소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산업과 풍력 및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로부터의 그린 수소생산과 시멘트 등 탄소 배출 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에 따른 이 퓨얼(e-fuel)과 같은 대체 연료산업도 지속 육성할 계획
UAM	지방자치단체	<p>중앙부처 - (해당 없음)</p> <p>[경기도 포천시] 포천시·(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 및 AAM산업발전 MOU 체결 (7.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MOU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 육성, 학술, 교육, 연구, 행사 등 드론 산업 전반에서 상호협력 예정 *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국내 드론 분야 대표단체이자 드론 산업 비영리 단체로, 드론산업의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으로 설립 - 포천시와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는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 개발 ▲정부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공동 참여 ▲드론 세미나, 대규모 회의(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공동 기획 ▲포천시 드론·대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협약 체결 <p>[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에 UAM 산업 생태계 조성 예정 (7.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일대 UAM 산업을 육성해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 예정, - 새만금개발청, K-UAM드림팀 등과 협력하여 ‘전북형 UAM 시범사업 및 상용화’ 사업 추진 - K-UAM드림팀과 공동으로 ▲UAM 시범운용지역 및 사업자 선정 공동 추진, ▲전북형 UAM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 ▲도민 및 도내 기업과 상생방안 마련, ▲인재양성 및 UAM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계획
우주	중앙부처	<p>[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부탑재위성 6기 선정 (0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부탑재위성 6기 선정 - 주탑재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 탑재 예정 - 6기 큐브위성(3U 3기, 6U 3기)이 선정,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위성기술 역량 강화 목적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린텍, 한컴인스페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6U 큐브위성 포함 - 우주로테크와 코스모웍스의 3U 큐브위성 포함, 추가적으로 큐브위성 경연대회 선정 위성도 발사 예정
		<p>[우주항공청 NASA·JAXA와 우주 협력 논의 (07.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코스파)’ 개최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요국 우주기관 관계자들과 우주기관 연석회의 진행 - 팰멜로이 NASA 차장, 히토시쿠니나가 JAXA 소장, 리귀핑 CNSA 수석엔지니어 등 참석 - 고위급 양자 회담 통해 우주개발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및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논의 - 우주항공청, 다누리, 누리호 성과 홍보 및 국제 협력 활동 활발히 추진 계획
	지방자치단체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표준에 맞춰 저궤도 위성통신도 개화..740조 시장 잡겠다’ (07.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2030년 6G 이동통신 표준화 시점에 맞춰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 계획 발표 - 6G 위성통신 콘퍼런스 2024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저궤도 위성통신의 중요성 강조 -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2040년까지 74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에 3,200억 원 투입 예정 - 국방 분야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핵심 전략자산으로 활용 계획
		<p>[경남도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에 팔 걷어 (0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접근성 개선과 정주여건 마련에 힘을 쏟아 -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 신설, 사천공항 항공편 증편 방안 추진 - 김명주 경제부지사, 진에어에 김포~사천 구간 운항 증편 건의 -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 지급 예정 - 박완수 경남도지사, 항공편 증편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집중 노력
	<p>[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10만 군민 꿈의 발판” (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확정, 고흥군 전역이 축제 분위기 - 공영민 고흥군수, 2030년까지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미래전략산업 중점 육성 계획 -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민간 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주요 사업 예타 면제 -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접근성 개선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 - 주거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택지개발 추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강화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p>[H2KOREA]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명칭 한국수소연합으로 변경, 본부장 직제도 신설 (07.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기관 명칭을 기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한국수소연합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안건 의결 - 기존 명칭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기관의 성격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변경을 결정 - 단장 겸 부회장을 사무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장 직제를 신설해 정책 지원 및 기업지원과 국제협력을 강화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이사로 이두순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박희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가 각각 선임 <p>[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소경제·탄소중립' 민간 주도 길 모색·생기원 대국민 포럼 개최 (07.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탄소중립 대국민 포럼' 을 개최 - 이번 행사는 수소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산학연관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자 마련 - 간담회에 참석한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 - 이창엽 생기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장은 '수소경제 전환·탄소중립 이행과 산업 지속가능 기술 전략' 을 소개 -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선호 전력거래소 팀장, 정광국 미국 아칸소주립대 교수, 김종민 생기원 지역산업혁신부문장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
	지방기관	- (해당 없음)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연구기관	<p>[항우연 '다누리' 한·미 과학자 한자리에·임무 연장 가능성 등 논의 (0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다누리 참여 과학자 연례회의, 부산에서 개최 - 미국 항공우주국(NASA), 다누리 관련 연구진 등 70여 명 참석 - 다누리 임무 운영 현황, 수신 자료, 자료 활용 결과 등의 발표 예정 - 2025년 말 임무 종료 예정인 다누리의 임무 연장 가능성 논의 - 회의는 다누리 탑재체의 과학자료 활용도 극대화과 한·미 과학자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 <p>[COSPAR] 세계 최대 우주 학술 행사 코스파 한국에서 첫 개최 (07.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벡스코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개최, 한국 첫 유치 - 60여 국가에서 3000여 명 참석, NASA, ESA, JAXA 등 주요 우주 연구 기구 참여 - 한국 우주항공청, NASA, ESA와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협력 논의 - 한국의 우주 기업들, 페리지어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등 국제적 관심 - 다양한 국적의 우주연구자와 기업관계자들이 기술과 제품홍보,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지방연구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및 기타(논문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p>[현대자동차] 수소버스 키우기·충전소 300개 짓는다 (07.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는 수소버스 충전소 사업을 벌이는 코하이젠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전국 300곳에 수소버스 충전소를 짓는다는 계획 - 코하이젠은 2021년 지역난방공사와 현대차, GS칼텍스, SK에너지 등 9개사가 241억 원을 출자해 설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 6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하이젠은 지난해 36억 원의 적자 - 수소 충전소를 1개 열려면 30억 원 가량이 필요하며, 코하이젠이 중장기적으로 300개 충전소를 세우기로 한 만큼 9,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 - 업계에선 최근 현대차가 전북 전주 공장의 수소버스 연간 생산능력을 500대에서 3,100대로 늘린 것도 수소버스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파악 - 현대차는 대당 2억 원가량(보조금 차감 금액)인 수소버스 가격을 1억 원 안팎인 중국산 전기버스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
	대학교	- (해당 없음)
수소	해외	<p>[일본] 에너지 기업 인펙스, 호주 재생에너지 2조 원 투입 (0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Inpex)가 2030년까지 호주에서 2,000억 엔(약 1조 7,473억 원)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 인펙스는 호주를 그린수소 수출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에넬(Enel)과 세운 합작 회사인 에넬 그린파워 오스트레일리아(Enel Green Power Australia, 이하 EPGA)를 통해 300MW(메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2,000MW에서 최대 4,000MW로 확대 - EPGA는 증설된 재생에너지 시설로 생산한 재생가능전력을 우선 호주에서 판매하고, 2030년 이후에는 전력의 일부를 호주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인펙스의 천연가스 생산 시설인 이치스(ICHTHYS)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 - 인펙스는 당장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과 저장(CCS) 시설을 도입하겠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p>[미국] 수소 전기 항공택시, 840km 날았다 (07.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스타트업 조비에비에이션이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공택시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 - 액체 수소 연료로 구동하는 eVTOL 시험 비행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지역에서 약 841km 진행하는 데 성공 - 약 40kg의 액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연료 탱크를 설치, 액체 수소 연료 전기와 수소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춰 비행을 진행 - 액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생성된 전기는 항공택시의 6개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장착된 배터리는 이·착륙 시 추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UAM	민간기업	<p>[현대자동차 7월말, 인도네시아에서 에어택시 실증 테스트 예정 (7.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공동 개발한 에어택시 7월 말 시험 비행 예정. 인도네시아 독립 79주년 기념행사에서 미래형 도심 항공기를 정식 공개 - 에어택시 정식 공개 이후 그룹 산하 미국 UAM 법인 '슈퍼널'을 통해 현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인도네시아 UAM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 <p>[현대엘리베이터 수직 격납형 H-PORT 개발 본격화 (7.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엘리베이터, 국토교통부로부터 H-PORT* 개발 국책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p>* H-PORT → 착륙장과 이륙장을 분리해 기체의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델</p>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p>- 기존 버티포트는 기존 공항과 마찬가지로 넓은 대지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고층 건물이 밀집한 서울 등 도심 환경에서 넓은 대지 공간을 확보하기란 어려움이 있음</p> <p>-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직·수평 이동이 가능한 자동 주차 시스템을 활용, 공간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옥상을 UAM 이착륙장, 건물을 격납고로 활용하는 ‘H-PORT’ 개발 본격화</p> <p style="text-align: center;"><H-Port 개요> <H-Port 조성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91 481 901 929"> <p>H-PORT 구조도</p> <p>착륙장과 이륙장을 분리해 기체의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한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NDING ZONE 기체 착륙 구역으로, 유럽 도시 항공청(EASA)과 미국 연방 항공청(FAA)의 지침을 바탕으로 기체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결정한다. AGV(Auto Guided Vehicle) 착륙한 기체를 위한 리프트로 수평 이동시킨다. MAIN LIFT 기체를 원하는 공간까지 수직 운반한다. 안전 기능을 갖춘 트래션 포트 타입을 적용해 기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으며, 독립한 메카니즘에 의해 호이스트웨이 리드와 통합돼 있어 리프트 키가 착륙 종료로 이동하지 않을 때는 호이스트웨이의 상단은 항상 밀폐된다. REGENERATIVE DRIVE 메인 리프트에 있는 재생 드라이브로, 기체와 승객 전력원이 될 수 있으며 포트 전체의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PARKING LAYER 기체 주차 공간. 기체 수에 따라 주차 용량 조절할 수 있으며 주차 용에 기체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다. MIRO STATION 기체 유지보수 공간으로, 별도의 작업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직항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AMBULANCE LIFT 구급차를 이륙 구역까지 이동시키는 장치로, 기체와 구급차 간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TAKE-OFF ZONE 기체 이륙 구역 PASSENGER LOUNGE 승객 대기 장소 </div> <div data-bbox="933 481 1460 929"> </div> </div>
UAM	민간기업	<p><u>트이스페이스 UAM 기체 1호기 초기 출고 (7.12)</u></p> <p>- 1호 UAM 기체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위치한 한국항공고등학교에 납품되며, 국내 유일한 도심항공교통 교육용 기체로 사용돼 우리나라의 미래 항공 인재 육성에 기여 예정</p> <p>- 한국항공고등학교에 UAM 기체 1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국내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것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월군, 태백시 등과 함께 동강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UAM 실증특화도시’ 를 연계 예정</p> <p>- 상업·물류·산업·주거·여가 등 다양한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자체 협의를 통해 동강 투어 코스 등을 UAM 상용 실증노선으로 선정할 예정</p> <p><u>맥시멈코퍼레이션 UAM 등 국내 소형 항공기 견인을 위한 토우로봇 개발 (7.12)</u></p> <p>-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진주강소 특구지원센터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인 맥시멈코퍼레이션(주) 이 자사 기술력을 활용해 국내 항공기용 토우로봇 개발</p> <p>- 항공기 견인장비인 토잉카는 항공기·트레일러를 비행장 내에서 이동(격납고·활주로 등)하거나 정위치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으로 공항에서 주로 운용</p> <p>- 그러나 기존 토잉카는 중 대형 항공기 이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AAM, UAM 등과 같은 소형 미래 모빌리티 기기에 적용 가능한 토우로봇이 해결책으로 부상</p> <p>- 토우로봇은 기존 토잉카 대비 지상 조업 운영비용 절감 및 작업 안정성이 향상돼 해외 시장의 관심도가 높으며, 현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해외시장 공략 예정</p>
대학교		<p><u>서울대학교 대학ICT연구센터 공모 선정, UAM 자율 eVTOL 핵심 융합기술 연구 포함 (7.11)</u></p>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4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사업(세부사업명:대학ICT연구센터)’ 공모에서 일반 3개 과제에 선정</p> <p>-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위한 자율 eVTOL 핵심 융합기술 연구(UAM-eVTOL 융합연구센터*), ▲내결합성 양자컴퓨터 플랫폼을 위한 양자소재·소자 연구, ▲초연결 센서 융합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원천기술개발 연구 총 3개 과제에 선정</p>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UAM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eVTOL 융합연구센터’ 는 UAM 체계에서의 운송체인 eVTOL 분야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1단계)자율 eVTOL의 핵심 요소기술 연구, ▲(2단계)융합기술 연구, ▲(3단계)완전 자율기반 eVTOL 융합기술 고도화를 통해 핵심기술의 실증 및 업체 기술이전」 으로 UAM 상용화 시대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실무 특화된 고급인력 양성
	해외	- (해당 없음)
우주	민간기업	<p><u>우주항공기업 IPO 부진에도 후발주자 연달아 출격 (07.15)</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상장한 우주항공기업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후발 주자들 상장 준비 중 - 초소형 위성 개발사 루미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 NH투자증권 주관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덕산넵코어스, 키포코우주항공, 비츠로넥스텍 등 다수 우주항공 업체들 IPO 준비 - 최근 상장한 이노스페이스와 컨텍 주가,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각각 35%, 40% 이상 하락 - 우주항공 사업의 장기적 연구개발과 대규모 자금 투자, 높은 기술 요구 등이 투자 심리 저해 요인
		<p><u>[KAI] L4 우주탐사선 최초 공개 (07.1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에서 L4 우주탐사선 최초 공개 - COSPAR 학술총회: 전 세계 우주과학 권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대 학술행사, 올해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 KAI, 기조발표 및 논문발표 통해 현재와 미래의 주요 우주사업 플랫폼 선보여 - 태양 측면 관측에 활용될 L4 탐사선 모형 공개, 세계 우주과학자들의 이목 집중 - 강구영 KAI 사장,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기회 모색 계획
		<p><u>비츠로셀 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용 국산화 배터리 개발 계약 체결 (07.1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츠로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용 국산화 배터리 DM 개발 계약 체결 - 계약 규모는 11억 7,000만 원, 기간은 2026년 6월 6일까지 - 항우연, 개발 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개발 역량, 납품 이력 종합 고려 - 비츠로셀, 우주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이번 계약을 활용할 계획 -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 132억 원 투입 예정
	민간기업	<p><u>[컨텍] ‘COSPAR 2024’ 참석해 에어버스와 협력 모색 (07.1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우주 스타트업 주식회사 컨텍, ‘COSPAR 2024’ 행사 참석 - 유럽의 다국적 우주항공 기업 에어버스와 우주산업 업 스트림 분야 협력 논의 - 컨텍 대표 이성희와 에어버스DS 경영진이 초청 오찬에서 협력 방안 논의 - 양사는 레이저 통신, 양자 암호키 분배(QKD) 등의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성 논의 - 이성희 대표, “컨텍은 한국형 에어버스로 도약할 것”이라며 포부 밝혀
	<p><u>[코레일관광개발] “우주과학열차, 올해도 완판” (07.1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관광개발의 ‘우주과학열차’ 상품, 지난해 이어 올해도 완판 -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과 발사대 등 견학 포함 - 용산역 출발, 순천역 도착 후 나로우주센터, 고흥 녹동항,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방문 - 8월 출발 상품 예약 마감, 10월 중 추가 운영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p><u>스페이스X 주력 발사체 ‘팰컨 9’ 8년 만에 임무 실패 (07.15)</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 ‘팰컨 9’ 이 2단 로켓 엔진의 액체산소 누출로 인해 임무 실패 - 팰컨 9이 임무 실패한 것은 2016년 발사대 폭발 이후 8년 만 - 스타링크 위성 20개를 저궤도에 올려놓는 임무 수행 중 위성들이 예상 궤도보다 낮은 135km 상공에 배치 - 스페이스X는 2단 로켓의 불완전 연소로 위성들이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며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 설명 - 사고 원인조사 및 로켓 수리 후 미 연방항공국(FAA)의 승인 필요, 발사 재개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
		<p><u>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인들 ISS에 발류인 상황·귀환 8월로 밀릴 수도 (07.1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잉의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이용해 ISS로 향한 두 명의 우주 비행사 귀환 지연 - 스타라이너 도킹 후 헬륨 누출 및 기동용 추력기 결함 발생, 귀환 일정 불확실 - 스타라이너 이용 비행사들 42일째 ISS에 머무르고 있어 - 스페이스X의 재사용발사체 ‘팰컨 9’ 발사 실패로 대체 비행편 부족 - NASA, 승무원 안전과 임무 보장을 최우선으로 팰컨 9 문제 해결 중
		<p><u>NASA 2인자 “유인 화성탐사 후과 협력 논의” (07.1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 멀로이 NASA 부국장, 한국의 통신, 로봇틱스, 첨단 제조 등 기술 강점 언급 - 한국, 아르테미스와 문 투 마스 프로젝트에서 중요 역할 -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문 투 마스 프로젝트에 기여 중 - NASA의 민간 주도 우주 생태계 성공 사례 소개 -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연석회의에서 우주 탐사 분야 규약 부족 문제 논의 필요성 강조

□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주제	기관명	제목 및 주요내용	개최일자
수소	미래기술교육연구원	<p><u>미래기술교육연,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안전 기준/인증 세미나 개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오는 8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 및 실증 사례와 시설 안전 기준/인증 방안’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 - 이번 세미나는 △수소연료전지 밸류체인 구축 및 확대방안 △암모니아 추출 고순도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직접 연계 운전 실증 △암모니아 추출 고순도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직접 연계 운전 실증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지게차) 기술 개발 및 시장 현황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지자체 활용 실증 사례 △수소 연료전지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 기준 개발 현황 △도심형 수소추출기 및 직접수소 연료전지 건물 적용 실증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 	2024 8.29

UAM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 민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전시회 개최 (7.17-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 드론 및 부품,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기체 전시 및 컨퍼런스, 세미나 등 무인이동체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7개의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 주관 :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13개 기관 참여 - 장소 : 코엑스 Hall C 	2024 7.17 ~ 7.19
우주	한국천문 연구원	<p>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COSPAR 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 물리학, 헬리오스피어, 천체물리학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 머신러닝 기술의 태양 및 헬리오스피어 물리학 응용, 태양 대기에서의 파동 및 흐름 연구 등 연구성과 공유 - 장소: 부산 벡스코 - 주최/주관: 한국천문연구원 - 일시: 2024.07.13. ~ 21. 	2024 7.13 ~ 7.21

-끝-